

부평
별곳

문화도시부평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부평별곳'
활동 지원 공모 사업
결과자료집

부평별곳, 공간을 탐색하다





부평별곳 프롤로그

- 6 부평별곳 PM
- 7 콘텐츠인터체인지 대표

부평별곳 히스토리

- 10 1. 공고&심사
- 28 2. 협약식(워크숍)
- 40 3. 사전방문&일상컨설팅
- 52 4. 전문가컨설팅
- 64 5. 네트워크 파티

부평별곳, 부평열곳 스토리

- 76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 82 아이디퍼포먼스
- 88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94 미추홀정가원
- 100 공연창작소 지금
- 106 문화예술비빔
- 114 희영트리오
- 120 사진디자인그룹
- 126 해인기획
- 132 미래문고

부평별곳 에필로그

- 140 인큐베이팅
- 144 부평별곳의 별별이야기
- 148 그리고, 부평별곳



부평별곳 프롤로그

문화도시 부평, 그리고 부평별곳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을 발굴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화도시에서의 방점은 '지역'과 '주민'입니다. 주민은 대상이 아닌 '주체'입니다. 주민들은 문화도시를 기획하고, 만들고, 참여하고, 누리면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환경을 조성합니다.

문화도시 부평은 지역에서 문화를 기반으로 자주 만나고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술가와 주민들이 일상에서 창의적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지원하고자 '부평별곳' 지원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카페와 책방이 미술관이 되는 동네.

주민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고,

주민들의 쓴 시로 낭독회를 할 수 있는 동네.

누구나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공연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동네.

슬리퍼를 신고 마실을 가듯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동네.

문화도시 부평은 이런 문화 활동들이 골목에서, 거리에서 반딧불처럼 반짝이길 바랍니다. 별의별 개성을 지닌 공간과 사람이 별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문화가 더이상 특별한 것이 아닌 숨 쉬듯 일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별곳'을 통해 문화도시 부평의 문화생태계가 든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길 희망합니다.

사람과 일상, 일상과 문화, 문화와 공동체 그것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부평, 그리고 부평별곳에서 문화로운 삶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문화도시부평 PM 청산별곡

부평별곳을 시작하며

부평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공간지원 사업으로
'부평별곳'이 태어났습니다.

부평별곳은
'부평에 별같이 빛나는 곳,
부평에 별의별 개성을 지닌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든 공간에서,
시민이 함께 어울리고,
시민의 아이디어로 풍성해지는,
시민의 문화를 만들어갈,
시민의 별곳을 기대합니다.

방황하는 이에게 길을 안내하는 별처럼,
밤하늘을 찬란함으로 수놓는 별처럼,
누군가의 간절함을 품는 별처럼,
따스한 온기 내뿜는 별처럼,
존재하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부평 곳곳에서
문화도시 부평을 함께 만들어 갈
부평별곳이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반짝이길 바랍니다.

콘텐츠인터체인지 대표 정경숙



부평별곳 히스토리

1 공고&심사



공고와 심사에서는 부평별곳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공고와 함께 시작된 홍보, 접수,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심사까지, 무척 짧은 시간에 역동적으로 진행된 절차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부평별곳 공고 과정

부평별곳은 9월 14일 공고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기존공모	연장
공고접수	9월 14일~9월 28일	9월 14일~10월 4일
서류심의	9월 29일	10월 5일
면접심의	10월 6일	
선정발표	10월 7일	
워크숍	10월 8일	
개별컨설팅	10월~11월	
사업시행	10월~12월	
네트워크	12월 중	
사업정산	12월 중	
결과보고	22년 1월 중	



부평의 별같이 빛나는 공간, 별의별 개성을 가진 공간을 지원합니다.
 공간형은 구민을 대상으로 공간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협업형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간을 개방해 협업할 의지가 있는 공간을 지원합니다.
 공간지원을 통해 부평의 개성 있고 보물 같은 공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며
 구민과 예술인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공간 운영 주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부평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부평별곳」 활동지원 공모 사업

부평에 별같이 빛나는 곳, 부평에 별의별 개성을 지닌 곳

부평 별곳

접수기간

2021.09.14.
~ 10.04.

접수방법

bpcf2046@daum.net

문의

032. 888. 0573
032. 500. 2046





[공모유형]

공간형

[지원자격]

부평지역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할 의지가 있는 주체

[지원내용]

공간 개방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 (교육,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전반)

[지원규모]

1곳당 500만원 (7곳 내외)

협업형

[지원자격]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활동을 확장할 의지가 있는 주체

[지원내용]

지역예술가협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 (교육,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전반)

[지원규모]

1곳당 500만원 (7곳 내외)

- 공간형 사업은 공간개방을 위한 교육, 전시, 공연 등 문화 행사 전반을 지원합니다.
- 협업형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협업할 수 있는 교육,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전반을 지원합니다.

[심사방식]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공간형	협업형	
사업성	기존 활동 이력	기존 활동 이력	10
	사업내용과 공간의 적합성	예술가 협업의 구체성	10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문제의식	지역에 대한 이해도 및 문제의식	10
	기대효과	기대효과	10
가능성	사업을 통한 확장 가능성	사업을 통한 확장 가능성	15
	사업 후 공간개방 계획	사업 후 예술가 협업계획	15
현실성	예산의 타당성	예산의 타당성	15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실현 가능성	15
가산점	코로나19 대응방안 지역예술가 참여	코로나19 대응방안 장년예술가 협업	최대 +10
			각 5점

[지원내용]

유형	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지원
공통	시범사업 운영비용 팀당 최대 5,000,000	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부평별곳 현판제공	추후 문화도시 부평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사업비 지원은 사업 정산 간소화 절차로 진행됩니다.
- 현판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o 선정자 의무사항

-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컨설팅은 참여가 필수입니다.
- 사업 선정 시 두레시민회 가입 및 활동 필수 (월 1회 온라인 운영)
- 자체 SNS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홍보 진행 필수

[접수 및 유의사항]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pcf2046@daum.net)

접수기간 : 2021.09.14. - 09.28.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단체등록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간형) 공간소개서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의 임대차 계약서 (미만 시 임대 연장 의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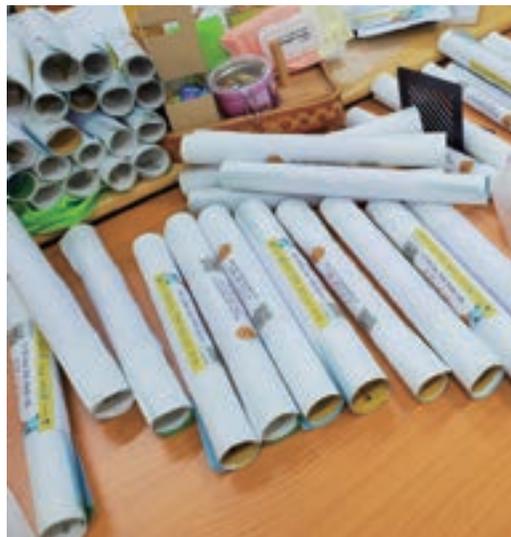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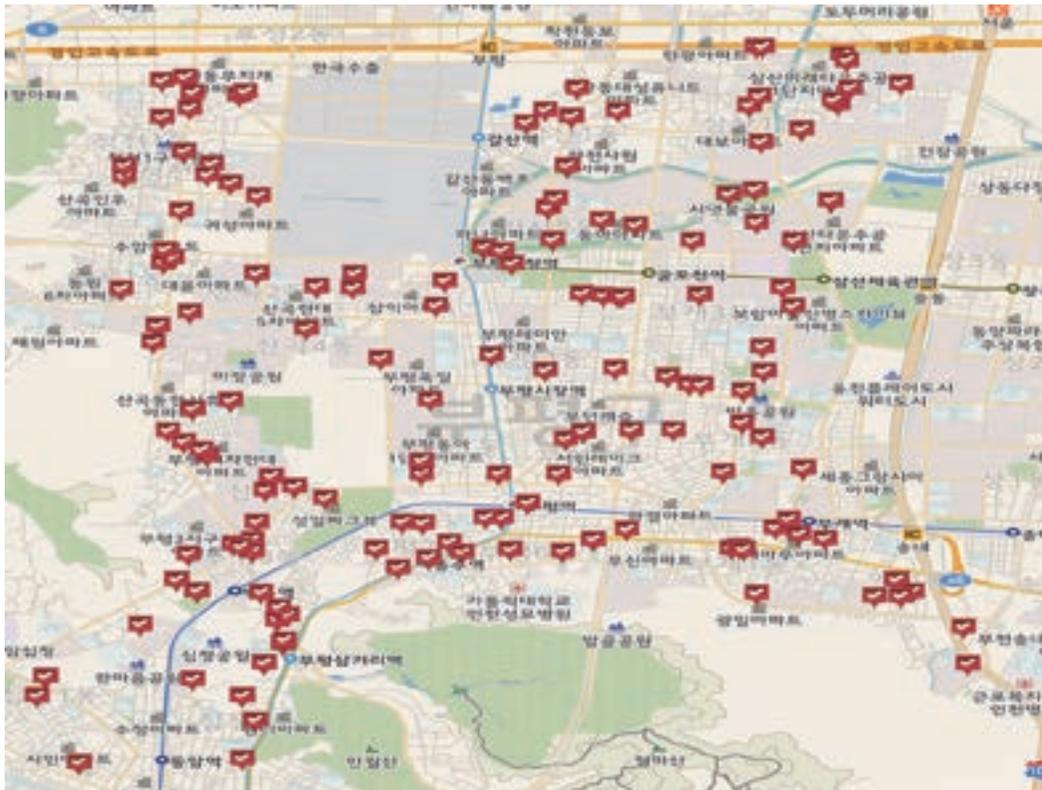
- (협업형) 참여 예술가 프로필 (자유양식)

유의사항

- 사업 일정은 코로나19 등의 이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사사업의 경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검토)
- 종교단체, 학교, 정당등의 자체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bpcf2046@daum.net
이메일 혹은 032-888-0573 / 032-500-2046으로 부탁드립니다.

2) 안내 및 홍보

웹자보와 링크는 부평문화재단, 네이버카페, SNS 등을 통해 안내했으며, 더 많은 부평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독립서점, 부평도시재생관련단체, 부평마을공동체, 부평문화시설, 부평예술단체, 부평복지시설 등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부평 전역에 걸쳐 약 300여 곳에는 직접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3) 부평별곳 심사과정

공고를 통해 총 14팀이 응모를 하였으며, 서면심사와 대면심의를 통해 총 10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서면심사의 현장



—서면심의 현장

2021 문화도시부평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부평별곳』 활동 지원 공모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장공모를 통해 10월 4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한 서류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향후 대면심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부평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부평별곳』 활동 지원 공모 사업 서면심사 선정발표**

구분		단체명
공간형	1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2	아이디퍼포먼스
	3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4	미추홀정가원
	5	공연창작소 지금
	6	문화예술비빔
	7	희영트리오
	8	사진디자인그룹
협업형	9	해인기획
	10	미래문고

서면심사의 결과



대면심의 현장



대면심의 현장



—대면심의 현장



대면심의 현장

**문화도시부평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부평별곳』 활동 지원 공모 사업 서면심사 선정결과**

구분		단체명	결과
공간형	1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선정
	2	아이디퍼포먼스	선정
	3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선정
	4	미추홀정가원	선정
	5	공연창작소 지금	선정
	6	문화예술비빔	조건부 선정
	7	희영트리오	선정
	8	사진디자인그룹	선정
협업형	9	해인기획	조건부 선정
	10	미래문고	선정

부평별곳 심의 평



이번 <부평별곳>은 문화도시부평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작은 민간 공간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공간형은 구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공간이 생활권내 작은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전망을, 구민들은 생활권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이 가능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심사했다. 협업형은 예술인이 지역 작은 공간과 문화예술 창작과 매개를 함께 예술인과 공간이 지역 문화생태계에서의 자기전망을 시도하는 할 수 있는 가를 중점에 두었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이러한 주요한 심사 방향에 따라 새로운 지원 사업이 기존 공간과 주체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상상과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를 고려했다. 2차 인터뷰 심사는 지원 사업의 방향과 해당 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과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내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생활권내 거점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자리잡는 것이 무엇보다 지역 문화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문화도시의 지원 사업이 평가와 심사보단 연대와 협력이란 지향을 두고자 했고,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이라는 간접 지원도 추가했다.

지역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계와 공모 규정과 절차에서 최소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은 재단 및 행정 단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 주체들이 공공 지원을 할 때 혼선이나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고 지역 공공 사업의 신뢰도와 방향성은 지역문화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공간이나 주체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을 기존 광역시나 광역 문화재단의 공간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생각해서 기존 사업과 비슷한 구성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업은 기존 활동의 변형이 아니라, 구민과 예술가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는 활동과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공간의 개방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참여자 모집이나 방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기존 네트워크에 의존하거나 피상적인 온라인 홍보를 언급하여 오히려 그 공간의 지역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대상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부분이 적어 아쉬웠다. 구민과 예술가에게 개방하는 활동 역시 단순 '문을 열어둔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코로나19관련 대응 부분도 물론 여전히 코로나19가 활동과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지역문화생태계에서 작은 민간 공간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생활권내에 직접 소통하는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막연한 온라인, 유튜브를 이야기하기보단 좁지만 깊게 풍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사업의 취지이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 부분에서 새로운 공공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지역문화생태계에 기대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보다 새로운 다른 시스템이나 방법론이 생겨나는 것일텐데, 기존 예산 계획을 답습하거나 무리하게 여러 개 사업을 하면서 적절한 항목을 책정하지 않거나 새로운 예술창작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보완되길 바란다.

지역에서 작은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갖는 장소성을 고려했을 때 공간의 기획운영자는 보다 문화예술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일정 부분 역량 높여 지금 여기의 다양한 감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평별곳>에서 간접 지원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이 단순 사업 점검이나 확인이 아니라, 광활하고 다양한 지역성을 가진 부평의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한 협력과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들이 열린 마음과 새로운 전환을 함께 만든다는 연대를 갖기를 바라며 응원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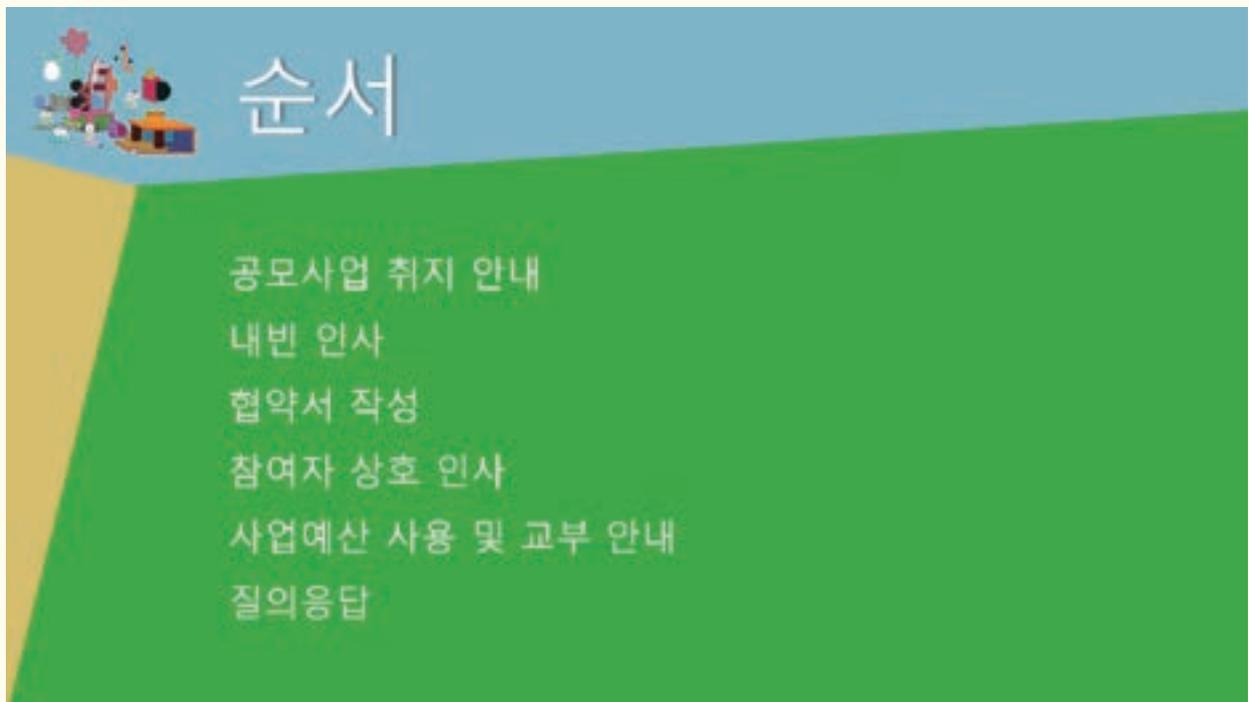
협약식 (워크숍)



협약식을 병행한 워크숍에서는 부평별곳에 선정된 단체들과 첫만남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사업 운영기관과 사업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믿으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각자 공간에 대한 소개와 부평별곳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할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부평별곳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단체들은 서로 다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컸습니다. 개별공간으로 활동하지만 부평별곳이라는 이름으로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열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각각의 부평별곳에서는 어떤 문화를 꽃피울지 기대가 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운영기관과 사업주체가 서로 부평별곳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약속했으며 워크숍을 통해 단체 소개 및 사업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문화도시 :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정 지정도시



공모사업 취지 안내



공간형

문화주체가 보유한 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하고
공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협업형

지역예술가와 협업과정을 통해
활동을 확장하고 예술가와 함께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부평별곳 :

부평의 별처럼 빛나는,
부평의 별의별 개성을 지는 곳

내빈인사

사진촬영

협약서 작성

참여자 상호인사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아이디퍼포먼스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할라

미추홀 정가원

공연창작소 지금

희영트리오

사진디자인그룹

미래문고

문화예술비빔

해인기획

사업예산 사용
및 교부 안내

선정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5년내에 상주하는 비영리
민간조직
공공기관, 기관
정당조직
사진디자인그룹
미래문고

조건부선정
개인사업
공익활동 사업

사업일정
10월 12일 교부시작
현실형 및 네트워크형 행사 예정
12월 10일 사업대금
12월 15일 결산대금
※ 교부전 집행금액은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없습니다.

교부신청
1. 교부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 잔고가 0 원 통장
4. 체크카드 사본 ※ 통장 연동이 되어 있는 사본

운영지침
10.08. ~ 10.14. 교부신청서
10.12. ~ 10.18. 교부진행
11.30. 이후 집행 불가
12.10. 사업 종료

운영지침

정산필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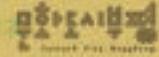
결과-정산 보고서 - 카드결제 (연말 30만원 이상서 결제시)
계정내역, 출금일지(은행발행인도서 첨부)

사진
통장사본
카드 거래 내역서

운영지침

- 사업명 : 2021 문화도시사업 - 부평영문 활동지원
- 주. 관 : (재)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지역을 안내를 위한 사. 교의 용금 및 고



"본 센터는 2021 문화도시 부평 - 부평영문 활동지원 -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운영지침

신청비	기타의 보조비 등 지원비에 따라 50000원 이상을 수 있다 - 신청비 환불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 신청을 할 경우 - 본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비 반환 기능 * 신청비 사액비지출 및 초과 시 10일 이내 100,000원 이내 - 신청비 환불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 신청
정산비	지원금의 잔액(잔액)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 신청 - 정산 시 30일 이내 신청서 접수 - 신청비 환불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 신청

운영지침

신청비	신청비(신청서 접수일)에 따라 50000원 이상을 수 있다
정산비	지원금의 잔액(잔액)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 신청
신청비	지원금의 잔액(잔액)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 신청
정산비	지원금의 잔액(잔액)은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 신청

참여자 필수 사항

문화두레 시민회 가입
신청서 접수
네트워킹 봉사 참여

문의사항

사업담당 라힘연
연 락 : 032-888-0573
에 일 : petleva7@hanmail.net
홈페이지 : <https://cafe.naver.com/bcspc>

Q&A













사전방문은 콘텐츠인터체인지, 문화도시부평센터 담당자와 함께 부평별곳에 선정된 단체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안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공간의 여건을 확인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컨설팅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 SNS, 이메일, 대면 등을 통해 사업의 진행 정도, 애로사항, 요청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맞춤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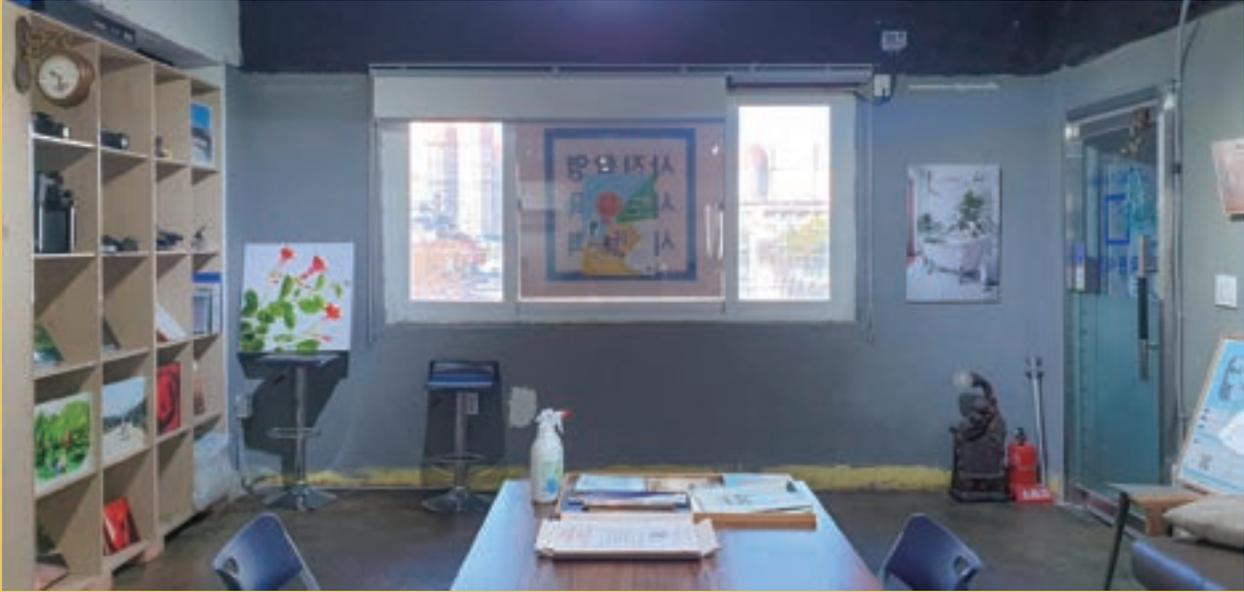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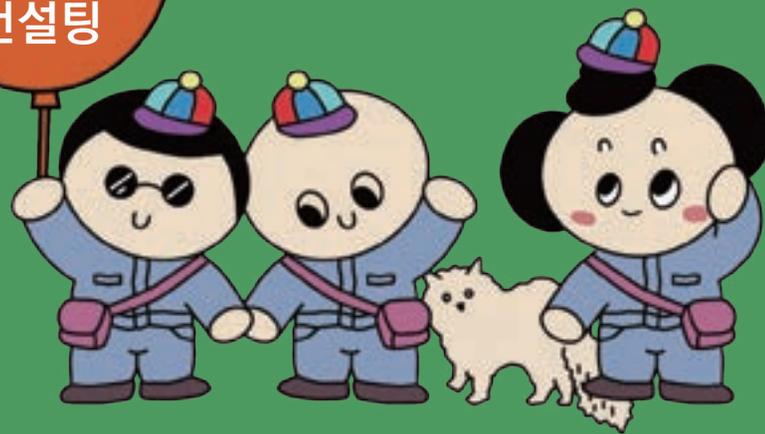






4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은 '문화도시부평'에 대한 이해, '부평별곳'의 의미를 제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공간들의 특색을 뚜렷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공간을 공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부평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주고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컨설팅 내용

부평별곳에 지원하게 된 계기, 공간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컨설턴트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정체성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컨설턴트와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대안은 '학원 간판 떼고 새롭게 네이밍한 후 공간 알리기, 전문 예술인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공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공간 및 사람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공간만의 콘텐츠 만들기-부평을 소재로 작곡해보기, 누구나 다루기 쉬운 악기라는 점을 활용하기, 음악도시 부평 활용하기, 지역의 공간에서 버스킹 해보기' 등이었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2차에 걸친 컨설팅은 인천알로하우쿨렐레앙상블이 '부평별곳'이라는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컨설팅이 없었더라면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알로하우쿨렐레앙상블은 좋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부평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컨설팅을 받고 난 후,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한 우쿨렐레'라는 공간을 음악활동에 목말라 하는 부평구민들에게 개방하고,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방문하고, 이 공간에서 음악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음악적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질 좋은 음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감사합니다^^



컨설팅 내용

아이디퍼포먼스의 현황, 부평별곳에 지원하게 된 계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공간 개방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 컨설팅과 공유했습니다. 부평별곳을 통해 다각적 공간 활용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은 ‘잘 만들어진 공간과 전문적인 콘텐츠에 집중하기, 콘텐츠와 공간을 중심으로 브랜딩하기, 활동 및 콘텐츠 기록하기,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학교가 많은 지역의 특성 반영하기, 마을공연장, 마을극장 등 지역과 연계한 공간 활용하기, 도서관·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시재생센터 등 지역 기관과 협업하기, 지역의 행사 참여하기,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 제작해보기, 미디어 퍼포먼스에 대한 접근 시도해보기, 융복합 교육 콘텐츠 개발 고민해보기’였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처음에는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 컨설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도 많은 부분 조언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동네 문화예술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2회 동안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 저희 공간이 부평에서 있으면서 지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평별곳 컨설팅이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 예술공간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공간과 지역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다음 번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애써주신 재단 관계자 분들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정윤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컨설팅 내용

공간이 만들어진 계기와 현황, 공간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입지 조건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책과 여성주의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의 공간 변화, 랄라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후원회원 증대, 수익구조, 페미니스트들의 활동공간, 애정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증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수행, 단체와 재단의 연결고리 역할'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박미숙선생님과 컨설팅 약속을 잡으며 어떤 부분을 좀 논의하고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 랄라 도서관의 진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컨설팅을 받으며 선생님께서 먼저 랄라도서관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나갈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오랜 시간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오신 분으로서의 경험과 연륜이 절절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역의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인지 모르겠으나, 랄라도서관은 재정적으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너무 어려워져서 운영자로서 많이 버거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공간유지나 운영자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하기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세세하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컨설팅이었습니다.



컨설팅 내용

미추홀정가원의 발자취,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유지의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부평별곳 이후의 모습과 활동에 대한 바람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컨설팅에서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거나 젊은 층의 유입, 대표님 혼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의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타 장르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시각적인 요소의 변화, 공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방하고 활용, 기존의 역량을 활용한 세밀한 전략, 다른 부평별곳들과의 협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더욱 활기차게 활동하며 부평 문화도시답게 부평의 별의별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양한 생각도 공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입장과 문화예술가들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 많은 대화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컨설팅 내용

부평별곳 사업을 진행하며 느낀 소감, 공모사업 지속의 중요성, 공간지원사업의 실질적인 방안,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에 대한 소회, 예술가로 활동하며 느꼈던 자생과 순환에 대한 고민과 지원의 부족, 지역예술가임을 자각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고민이 시작됨, 지역에서의 연대와 성공의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함, 활동 경력을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 구조의 다각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 '공간의 시간과 체험을 아카이빙하고 공공화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부평별곳으로 조성된 예술가 및 공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공간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려야하나.' 하는 생각에 그냥 지역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왔다고 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즐거운 대화속에서 진행된 컨설팅...이것도 공간을 운영해본 공간 운영자이기에 가능한 컨설팅이라는 생각을 했다. 감사한 마음이다.



컨설팅 내용

부평별곳에 참여한 소감, 지역의 이야기와 공간을 지키는 의미 등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컨설팅에서는 '공간을 운영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문화예술비빔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캠프마켓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의도 전달, 공간 활용 구상, 공간을 채울 콘텐츠' 등을 주제로 논의하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1.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소들
 - 역사캐기 : 동네 야사 돌아다니는 역사
 - 지역정서담기 : 콘텐츠 개발 등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이음줄 역할
2. 공간이 관객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되는 요소
 - 부평의 역사를 넓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다급함이 느긋함으로 바뀌는 공간)
 - 외갓집 같은 느낌
 -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음악 콘텐츠 인테리어 분위기 등]
 - 나도 누리고 즐기고 참여하고 싶은 공간[내외 환경 포함]
3. 살아 있는 공간으로 남기 위한 고민들
 - 공간의 정체성 갖기 : 기억되는 공간
 - 공간이 무엇을 어떤 부분을 함께 하면 좋을까?
 - 공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기획은?
 - 공간이 젊은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컨설팅을 통하여 공간 운영 플랫폼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음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기쁨도 마련되었습니다. 컨설팅트의 확실한 이정표 역할은 우리에게 오래 남는 컨설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내용

사진을 매개로 다양하게 활동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을을 방방곡곡 다니며 홍보한 것, 참여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던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에서는 공간 사용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사업 이후 동아리 활동 지원, 단체와의 네트워크, 지역 탐방 및 사진기록화 작업, 사진 기록물 열람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공간 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했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부평별곳에서 제공해주신 우리 그룹에 대한 컨설팅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도를 제안해주셨고, 구체적인 통로의 예시도 알려주셔서 2022년에는 꼭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진이 가진 기본적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부분도 좋은 조언을 주셔서 앞으로의 활동을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내용

부평공간 참여 취지 및 중점적으로 기획한 부분, 진행 상황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협업형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던 만큼 공간 소유주가 감당해야 할 사안과 기획자가 추구하자고 하는 방향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무척 중요했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후 공간의 활용 및 기획자의 고민에 대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공간, 예술가(기획자),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형성하기, 사업의 취지를 지역에 알리기, 지역의 이야기로 확장하기, 기획자로서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일상적 문화예술에 필요한 사항 공유하기, 소통으로 공간을 자리매김하기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이번 부평별곳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생활문화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 동아리운영, 공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20년 넘게 하나의 영역에서 일하며 얻은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어 새로웠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공간형 사업으로 공간, 기획자, 예술가, 시민이 만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 전문문화예술, 문화예술사업종사자 등 조금씩 다른 영역이며 그 영역에 맞게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시점도 사전, 중간, 마무리 3차례 혹은 사전, 마무리 2차례만이라도 진행된다면 나눌 거리와 함께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의 전문가(락캠프, 흐르는물, 버팀라인 등)를 운영한 노하우도 언젠가 컨설팅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 콩 대표님의 운영 방향도 그분들과 더 맞닿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내용

미래문고의 발자취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활용과 변화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컨설팅했습니다. 책을 판매하고 싶은 것인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인지 공간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책이라면 분류와 배치를 더 고민하고 문화공간이라면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기, 공간의 지속성 생각하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후에도 참여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동아리 조직하기, 공간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컨설팅 참여 소감

1차 - 공간에 관한 컨설팅, 2차 -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컨설팅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공간에 관한 컨설팅은 미래문고가 동네책방인 점을 감안하시어, 책을 보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인터넷 서점이 아닌 동네 책방으로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큐레이션이나 책 진열 방법,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가능한 동아리 모임을 꾸준히 일상모임으로 자리 잡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작가님이나 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회원 모집과 지역주민의 특색을 아우르는 문화프로그램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5
네트워크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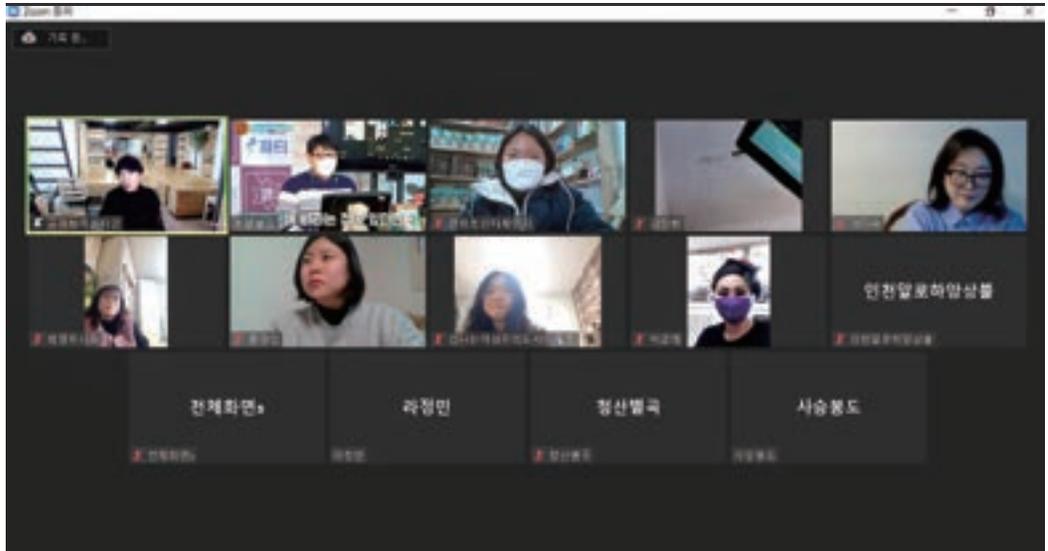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그동안 부평별곳으로 활동했던 단체별 영상을 시청하고, 부평별곳 사업을 통해 느낀점과 아쉬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할 수 없었던 아쉬움은 모두 같았습니다. 부평별곳이 한 지역에서 자리매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길 희망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단체별 소감은 부평열곳 스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부평구 부개3동

우카베 슈퍼밴드

우쿨렐레, 카혼, 베이스 연습과 합주 및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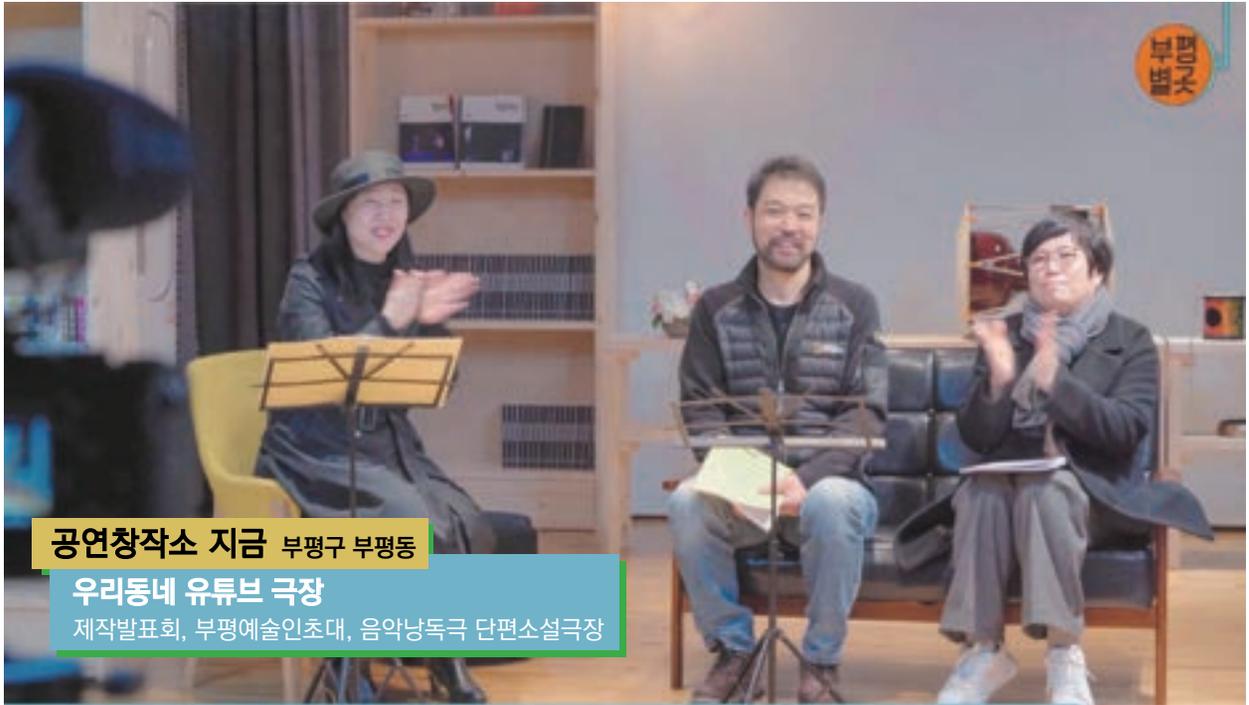


아이디 퍼포먼스 부평구 부평동

나도 마술사! | 다도애(愛)

미술체험 프로젝트와 전통 다도예절 체험 진행





공연창작소 지금 부평구 부평동

우리동네 유튜브 극장

제작발표회, 부평예술인초대, 음악낭독극 단편소설극장



문화예술비빔 부평구 부평동

사랑하지 않는 기억

미군부대 수문장 은사시나무를 활용한 다섯 작가의 작품 전시



희영트리오 부평구 산곡동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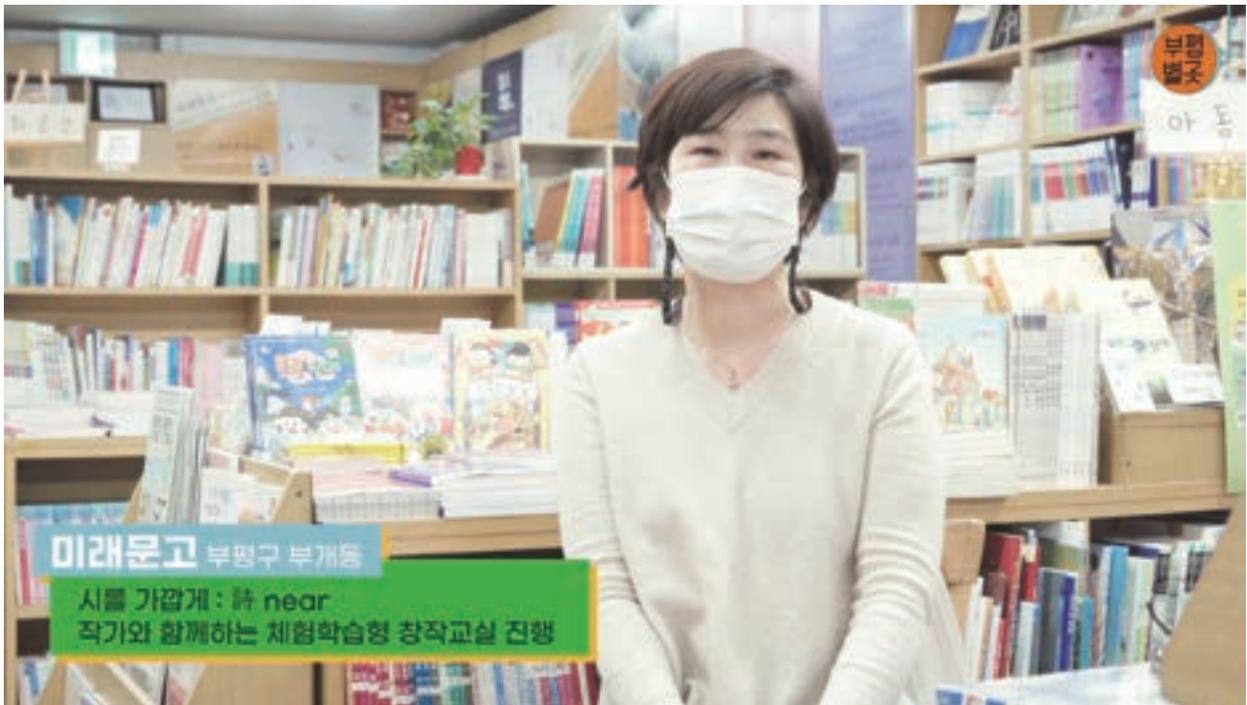
천연염색, 천아트 체험



사진디자인그룹 부평구 부개동

사진으로 하는 DIY 예술 작품 제작

전문적인 사진장비 체험과 이트상품, 달력 제작





부평별곳,
부평열곳 스토리

부평별곳 10개 공간의 이야기



인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상가 305호 (부개3동)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 대표자 염인정
- 이메일 ytresol@hanmail.net
- 주 소 인천 부평구 충선로 191 뉴서울상가 305호 (부개3동)
- 연 혁
 - 2020년 11월 21일 우쿨렐레로 들려주는 교과서 음악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 2019년 4월 17일 제4회알로하우쿨렐레앙상블 정기연주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 2018년 2월 3일 제2회알로하우쿨렐레앙상블 정기연주회 (부평여성회관 대강당)

사업명 : 우카베 슈퍼밴드

우쿨렐레, 카혼, 베이스 및 오르프 등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는 악기들로 이루어진 합주단을 결성하여 악기를 배우고 공연합니다. 공연은 코로나 19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기획의도

인천알로하우쿨렐레앙상블단의 연습실, 대표자의 개인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활동 외에는 사용되지 않아 공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때 부평별곳 사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부평구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부평별곳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1월 중
- 행복한 우쿨렐레 공간
- 활동내용
 - 우쿨렐레, 드림(카혼), 베이스 교육
 - 합주 연습 및 영상 촬영
- 합주영상
 - 'Way back then' <https://youtu.be/iwz-YHiaaqk>
 - '여행' <https://youtu.be/ikX5dBE2Q8M>

향후계획

본래 온라인 합주영상 외에도 버스킹을 하는 계획도 세워보았으나 코로나19와 날씨의 문제로 버스킹은 진행하지 못하여 참여자들도 아쉬워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종료후 우카베 슈퍼밴드 단원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며 단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밴드를 지속 할 예정입니다.







우선 부평별곳이라는 사업에 선정되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부평문화도시 기획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와 많은 도움주셨기에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부평이라는 곳에서 '음악'이라고 하면 '인천알로하앙상블, 행복한우쿨렐레'라는 공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부평구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소감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대표자 영인정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56, 2층 (부평동)

아이디퍼포먼스

- 대표자 권보영
- 이메일 id9160@naver.com
- 홈페이지 <https://id9160.wixsite.com/mysite-3>
-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남로56, 2층 (부평동)
- 연혁
 - 2021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부천예술찾기 미로美路
함께 더불어 사는 부천 - 배려 프리 (barrier free) 제작, 연출, 기획
 - 2020 제주문화공공예술 문화예술로 알아보는 4.3역사 '제주, 그날' 기획
 - 2019 성남시청 성남시 육아데이 페스티벌 매직퍼포먼스 연출
 - 2018 제31회 대한민국 어린이 푸른나라 그림대회 환경 매직 퍼포먼스
 - 2017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식 마술 공연 퍼포먼스 연출

사업명 : 우리동네 문화예술 체험

우리 동네에서 마술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합니다. 마술공연과 마술체험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다도 체험 및 예절 체험을 함께 운영합니다.

기획의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이 제한된 요즘 가까운 우리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직접 관람고 배워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지역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1월 중
- 아이디퍼포먼스 공연장
- 활동내용
 - 다도체험 및 예절 교육
 - 마술공연 관람 및 체험

향후계획

아이디퍼포먼스 공연장은 소규모 공연은 물론 온라인 중계까지도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의 예술가가 아이디퍼포먼스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협의하에 공간에 대한 개방 및 지원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마술공연 및 체험에 대해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평별곳에서 ‘우리동네 문화예술체험’을 진행한 아이디퍼포먼스 대표 권보영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우리동네 문화예술체험’은 말그대로 부평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우리 동네에서 새롭고 이색적인 문화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히 관람하는 문화공연도 좋지만 직접 배우고 함께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색취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술을 직접 배워보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배우는 다도체험, 인사예절교육 등을 진행하여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해주셨습니다.

마술배우기 프로그램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들이 취미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소에 배우기 힘들었던 마술이라는 이색 취미를 인터넷이 아닌 직접 프로마술사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도체험은 코로나로 갈 곳이 많이 없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전통 차예절도 배우고 인사 예절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평별곳이라는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동네에도 이렇게 재미있고 색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저도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에 계속 참여해서 올해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더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항상 늦게까지 일하시고 부평별곳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문화재단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소감



아이디퍼포먼스 대표자 권보영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0, 3층 (삼산동)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대표자 황보화
- 이메일 sssbp@naver.com
- 홈페이지 sinnalala.book/
- 주소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60, 3층 (삼산동)
- 연혁
 - 2021.9월 랄라기획전시 페미니스트 홍칼리 그림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당신에게>
 - 2121.5월 랄라기획전시 사진작가 혜영 <몸들의 말하기>
 - 2021.5월-7월 <서로를 치유하는 글쓰기 워크숍> 8회기 집행
 - 2020 <감각드로잉 워크숍> 4회기 진행
 - 2020 <나를 찾는 여정 여성주의 타로교육>8회기 진행
 - 2018-2020. 페미니즘 특강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 진행/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인문, 예술로 함께하는 학습 플랫폼)

사업명 : 아트로 힐링하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아티스트로 산다는 걸 뭘까

지구의힐링, 나의 힐링을 위한 봄눈별 명상음악회

나를 위한 핸드메이드 손수 만들며 수다 떨어 볼까

기획의도

페미니스트이자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예술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일상의 예술에 대해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몸과 맘을 편안하게 이완해주는 명상음악과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지친 일상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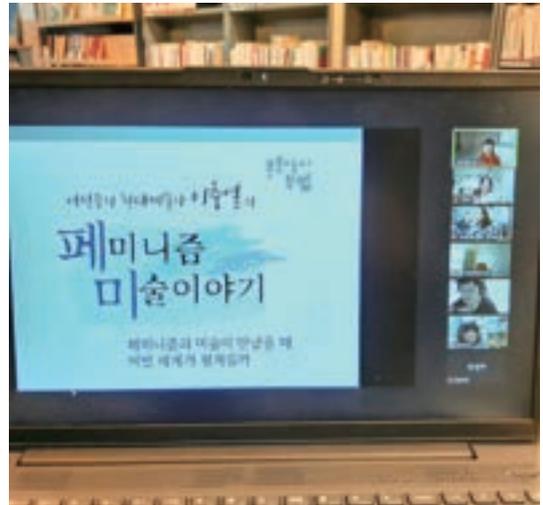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2월 중
- 신나는여성주의 도서관 랄라
- 활동내용
 - 홍승희 작가와의 대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까?"
 - 나를 빛나게 할 핸드메이드 만들며 수다 떨어볼까
 - 명상 음악가 봄눈별과 함께하는 지구를 위한 힐링 음악회
 -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장혜영과 함께하는 "힘내라!페미니스트" 토크콘서트
 -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이충열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미술이야기"

향후계획

랄라도서관에서는 페미니즘 특강이나 프로그램 진행 이후 참여자들이 후속 책모임이나 글쓰기 모임 등의 소모임 활동을 열어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힐링 콘서트 등을 통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참여자들이 이후 공통관심주제의 후속 소모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는 부평별곳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2021년을 아주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아티스트와 함께 나누는 일상 속 예술이야기, 지구의 힐링, 나의 힐링을 위한 명상음악회, 페미니스트 정치인과 함께 한 토크콘서트, 나를 빛나게 할 핸드메이드를 만들어 함께 수다 떠는 시간들을 통해 즐겁게 소통하고, 또 서로 위로받고 공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랄라도서관이 지역에 더 알려지고 정말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만난 여러 페미니스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며 연결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여 소감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대표자 황포자



인천 부평구 마장로 255, 3층 (산곡동)

미추홀정가원

- 대표자 박금례
- 이메일 pky0912@hanmail.net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장로255, 3층 (산곡동)
- 연 혁
 - 시조 강좌
 - 풍류랑스토리 공연
 - 목요소리밥상 공연

사업명 : 부평별곳 풍류랑스토리 공연

전통의 소리(시조. 민요. 송서)와 전통춤(교방검무) 강좌를 통해 우리의 소리와 몸짓을 체험할 수 있게 하며 풍류랑 스토리 공연을 통해 지역에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합니다.

기획의도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단절된 생활에서 오는 미음의 병을 치유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우리 전통의 소리와 춤을 교육과 공연을 통해 지역의 작은 공간에서 이웃과 공감하고 나누며 소통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2월 중
- 미추홀정가원
- 활동내용
 - 전통의 소리(시조. 민요. 송서)등강좌
 - 전통춤(교방검무)강좌
 - 부평별곳 풍류랑스토리 공연

향후계획

지역의 문화예술의 확대를 위해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공간 개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연습 공간을 개방하고 협업 공연도 시도하고자 합니다.







부평에서 전통문화예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부평별곳이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마음을 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평에 별의별 공간들이 많지만 서로 각자 공간별 활동하던 일들을 같이 공감하고, 협력해서 부평별곳이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부평풍물축제처럼 부평별곳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참여
소감



미추홀정가원 대표자 박금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94, 지하1층 (부평동)

공연창작소 지금

- 대표자 이은선
- 이메일 5015633@naver.com
- 주 소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94, 지하 1층 (부평동)
- 연 혁
 - 2008. 공연창작소지금 창단
 - 2009-2021 창작극 다수 제작(우리소원은, 음악극 단편소설극장)발표
 - 2013-2018 한국/베트남 문화예술교류공연(이중언어연극) -국제교류활동
 - 2018-2021 인천문화재단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 /교동/연평도 공연제작발표
 - 2019-2021 복합문화공간 지금 (유튜브 복합문화공간지금)운영

사업명 : 우리동네 유튜브 극장

우리 동네 주민들이 모여 신나게 놀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동네 유튜브 극장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동네를 새롭게 알아가고 모여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방송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구민 스스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양을 길러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획의도

‘우리 동네에 아주 친근한 공간(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어떨까?’ 상상합니다. 시장가다가, 일 끝내고 오다가, 쉽게 들러 볼 수 있는 곳, 시간에 구애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려 있는 문. 오다가다 들러서 무얼 할까? 책을 읽어볼까, 커피를 마실까, 연극을 해볼까, 영화를 볼까, 방송을 해볼까. 다 할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에서 오다가다 들러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접근방식으로 진행하여 일상적인 삶을 즐기고, 우리 동네 문화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면 예술인들과 함께 친근하게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곳,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평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별처럼 아름다운 공간을 꿈꾸어 봅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2월 중
 - 복합문화공간 지금
 - 활동내용
 - 우리 동네 유튜브 극장 “홍보- 제작발표회”
 - 우리동네 유튜브 극장 “부평예술인 초대”
 - 우리 동네 유튜브 극장 “음악낭독극 단편소설극장”
- <https://www.youtube.com/watch?v=RoipM-xNNjl>

향후계획

공연창작소 지금은 극단입니다. 연극은 종합예술로 불리는 만큼 음악/노래/춤/민요/악기/영상/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공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평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앞으로 이사업을 계기로 부평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형 사업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재생



부평 별곳 - 우리 동네 유튜브
극장_결과발표회

조회수 168회 ·
스트리밍 시간: 3주 전

부평 별곳 - 우리 동네 유튜브
극장

조회수 195회 ·
스트리밍 시간: 1개월 전



2021무평 별곳-“우리 동네 유튜브극장”을 진행하며

공연창작소 지금 이은선

부평의 별처럼 빛나는 공간을 꿈꾸며 부평별곳사업에 지원하였다. 3달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동네 유튜브극장이란 프로그램으로 부평의 예술인을 소개하는 별곳낭독회와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든 음악낭독극 붐뎀을 공연&온라인스트리밍을 함께 진행 해 영상결과물을 유튜브 복합문화공간지금에 올렸다. 계속 증가하는 조회수를 바라보며 코로나로 힘든 요즘의 문화예술계에서 비대면로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오프라인+온라인)의 지원 사업이 무척 소중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공간지원사업의 큰 장점인 우리 동네의 친근하면서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동네 가까운 공간의 매력과 함께 먼 곳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비대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재미난 공간을 만들며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 성장하는 부평별곳 복합문화공간 지금을 꿈꾼다.

참여
소감



사진디자인그룹 대표자 이은선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로 61 (부평동)

문화예술비빔

- 대표자 소병순
- 이메일 sonamuida@gmail.com
-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로 61 (부평동)
- 연 혁
 - 갤러리 61 : 2015년 ~ 현재 : 70여 작가 전시
 - 문화예술비빔 : 2021. 5 장 담그는 날 2회 운영

사업명 : 사라지지 않는 기억

부평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예술 활동입니다.

캠프마켓 정문에 있던 사고로 부러진 은사시나무를 활용하여 작가·가족 단위로 창의성과 기억을 접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작품 제작과정과 작품의 전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발하고자 합니다.

기획의도

- 지역의 예술가와 구민들에게 갤러리공간을 개방
- 예술가·구민들과 함께 문화활동
- 캠프마켓과 인접하여 주민들의 문화생산을 돕기 위한 환경과 예술감각 지원
- 사라질 뻔한 기억을 담은 사물(은사시나무)을 이용, 예술성을 가미 지속적으로 보존 · 기억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1월
- 갤러리 61 및 개별 작업 공간
- 활동내용
 - 작가선정 및 대상자 모집(10 팀이내)
 - 작업활동 스케치 및 아카이빙(개별 스케치)
 - 작품전시회

<https://cafe.naver.com/bpspace/11>

향후계획

- 정서함양 도모를 위한 예술교육을 추진 예정
- 향후 전시작업 예정
- 공원에서 얻어지는 소산물(가지치기한 나무가지)을 이용 열린 문화학교 운영(학생 및 구민 대상) 가지치기한 나무를 재활용하여 예술작품으로 승화

신종택의 작가노트

작 품 명 : 기억하고 싶은 슬픈역사 재료 : 은사시나무, 철근, 페인트 작가 : 신종택 2021. 11.

1. 본작품은 부평캠프마켓의 수문장인 은사시나무로 구상한 작품이다. 비극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은사시나무로 조형예술의 가치를 부여하고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형상화 하였다.
2. 평화와 역사 그리고 생태를 기본으로한 작품이며 철근의 가지형상은 역사의 흔적과 자연의 무궁한 가치를 은사시 나무를 기본으로 한 작품이다. 원형의 작품은 평화를 상징화하였고 작품전체 형상은 설치작품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든 설치작품이다.



이연옥의 작가노트

1. 60여년 캠프마켓과 그 밖을 지키던 '너' 이제는 '사라지지 않는 기억'을 간직하고 예술작품으로 영원히 우리 인천을 지켜줘!
2. 문화도시 인천 문화가 풍성한 인천 그리고 K-pop 원류의 뿌리를 뺏어 나가게 하는 인천
3. K-문화의 발원지 인천이 순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한다.
4. 10마리와 14마리의 나비는 2020.년 10월 14일우리에게 문이 열린 기념일을 뜻하며 희망 실은 비상을 의미
5. PX, ESCOM CITY, APO901(미군부대 사서함)등 우리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 들은 나무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으로 표현
6. 반환운동 674일로 희망의 문을 열었고, 법정문화도시 선정으로 미래의 비전을 예약너를 만나 참 행복하다. 불쏘시개로 가기 직전 너를 본 그 순간은 지금도 아찔하고 짜릿하다.고마워 우리와 함께해서!!!



이하숙의 작가노트

50여년 동안 부평의 캠프마켓을 앞으로 하고 자란 은사시나무를 쪼개지않고 최대한 생긴 그대로 활용하려고

1. 자른부분 위만 수평으로 만든다. 그위에 비, 눈, 바람에도 잘 견디도록 직사각형 모양으로
2. 만든 나무 위에 타일을 있게하여 그 위에 캠프마켓의 지도를 중심에 그려 하얀돌로 붙이고 남은 여백에 캠프마켓을 연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3. 완성된 것을 은사시나무 위에 얹어
4. 테이블이 되게 한다.

통나무를 잘라 양쪽에 놓아 의자로 만들어 차도 마시는 기억의 소통이 되길 바란다.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삶 속에서 잊혀져 가는 옛것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추억하길 바람이다.

2021.11.19



이영숙의 작가노트



부평의 오랜 역사를 지켜왔듯이...
 원시 시대의 시골은 단정하고 밝은
 색채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색상은
 도대체 특정한 바라는 마음으로
 단정하고 오래 참았다.
 → 옥에서 심의 흙은 굳어진다..



* 작가 : 박영환

* 작가 약력

- 1988 홍익대학교 서양화학과 졸업
- 1991 ~ 2020 ㈜ 문화방송 재직
- 2021 ~ 현재 전업 작가 활동

* 작품 내용

은사시나무가 세월의 흐름과 자리 (캠핑 마켓 입구)에 위치해 문지기로 여겨진 자리 지킴이의 의미가 한순간 사고로 사라지게 됨을 아쉬워 하는 마음에 동강난 은사시나무의 부분을 소재로 이미지 (겹겹히 쌓인 애환의 세월)를 형상화 하게 되었습니다.



▶ 은사시나무를 소재로 한 아이디어 이미지스케치



부평별곳-사라지지않는 기억 사업 소감

1. 문화예술비빔-공모기획 의도

- 60여년 이상 캠프마켓의 안과 밖을 지켜보다 쓰러진 수문장나무(은사시나무)를 활용 ‘사라지지 않는 기억’전을 통하여 캠프마켓의 역사·상징·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 지역의 작가들의 손을 통하여 이 소재에 작가의 혼을 담은 작품제작으로 조병창과 캠프마켓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
- 지역의 역사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어지게 하는 계기의 장 마련

2. 공모 준비 및 진행

- 폐기 될 뻔한 수문장 역할을 한 나무를 통하여 캠프마켓의 역사를 전달하고 이어지도록 준비
- 부평의 작가들에게 캠프마켓의 역사와 정체성을 작품에 담을 수 있도록 협의 및 자료 수집
- 수시로 소통을 하여 작가노트가 실제 작품으로 완성되도록 함께 하는 과정
- 각자 자기 공간에서 자신의 작품과 마주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의미와 진가를 발휘

3. 경과 및 전시 후기

- 아카이빙, 컨설팅 작업으로 공모사업을 기록하고 새로운 확장의 기회를 마련
- 작품 전시로 캠프마켓의 스토리텔링화 하고 지역을 고민하는 계기가 됨
- 야외전시를 통하여 관객층을 넓히고 공모사업 기획 의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됨

‘사라지지않는 기억’전은 조병창과 캠프마켓이라는 아픈 역사를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불쏘시개의 위기에서 구출한 나무를 소재로 작가의 혼을 불어넣어 작품화하고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부평의 별난공간 별곳으로 남는 장소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소감



문화예술비빔 대표자 소병순



인천 부평구 부흥로144번길 7-2 (산곡동)

희영트리오

- 대표자 박영희
- 이메일 ylc2715@naver.com
-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흥로144번길 7-2 (산곡동)
- 연 혁
 - 2019년,2020년,2021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2021년 인천아트시즌전(예술플러마켓 한마당)

사업명 :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천연 염색 체험

손수건,스카프 등을 치자,소목,쪽 등을 자연친화적 소재로 천연염색하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천아트 (천에 그리기) 체험

치자,소목,쪽 등의 천연염료로 염색 체험한 스카프등에 그리기체험을 합니다.

기획의도

자연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요즘 자연 친화적이고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천연염색과 염색한 천에 직접 그리고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고 활용하며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1월
- 자연빛깔 공방
- 활동내용
 - 치자 염색
 - 소목 스카프 염색
 - 쪽 염색
 - 패브릭 가방 염색

향후계획

- 심화학습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체험을 넘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희영트리오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업이라 새롭고 흥미로워 했고 결과물 전시도 보람 있었고 사진집으로 남길 수 있어 좋았다. 수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나 반응이 매우 좋아 보람 있었다.

참여 소감



희영트리오 대표자 박영희



인천 부평구 수변로58, 3층 (부개동)

사진디자인그룹

- 대표자 이경화
- 이메일 paransajin@naver.com
- 주 소 인천 부평구 수변로 58 3층 (부개동)
- 연 혁
 - 2021 클래식 라이브 사진콘서트 “회복의 시간” 기획.
 - 2020 인천시민공원사진가(인천광역시 자원봉사 단체) 참여

사업명 : 사진으로 하는 DIY 예술 작품 제작 실기

전문적인 사진 장비를 체험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사진작품을 제작해 보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 생활에 D.P가능하고 일상에 사용될 수 있는 소품 형태의 아트상품 등을 기획 제작 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촬영했던 사진과 스마트폰에 저장되었던 사진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달력을 직접 제작해봅니다.

기획의도

사진디자인그룹은 "사람과 함께, 사진과 함께"라는 큰 틀에서 사진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사진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평별곳' 공모에서 우리의 모임을 개방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진의 예술적 가치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더 큰 공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2월
- 스튜디오파란
- 활동내용
 - 1회차 : 꽃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사진촬영과 소품제작
 - 2회차 : 디자인 촬영 교육 및 나만의 사진이 담긴 소품 제작
 - 3회차 : 인물 사진 테크닉 교육과 프로필 사진 촬영
 - 4회차 : 2022년 달력 만들기 I - 사용 이미지 선택과 디자인 구성
 - 5회차 : 2022년 달력 만들기 II - 최종 편집과 결과물 제작

향후계획

공간 개방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월단위로 전시기획과 사진출판을 공유하는 "사진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절단위로 "꽃과 풍경"이라는 컨셉으로 하는 촬영 이벤트를 진행 예정입니다.







부평별곳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움츠러있었던 우리 사진디자인그룹의 활동이 다시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진을 즐겁게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기획하고 홍보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함께하신 분들 모두가 정말 만족해하셨고 시간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진행기간의 제한이 있어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지만 이어서 연결되는 과정이 있다면 긴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평별곳은 우리 사진디자인그룹과 스튜디오 파란이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아주 고마운 별이었습니다.

참여 소감



사진디자인그룹 대표자 이경화



인천 부평구 백범로503번길 6-5 (십정동)

해인기획

- 대표자 강현구
- 이메일 olddooli@naver.com
- 주 소 인천시 부평구 백범로 503번길 6-5 (십정동)

사업명 : 카페콩서트

카페 콩 공간에서 주말 하루 간 진행되는 라이브 공연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평 및 인천지역뮤지션이 참여하여 자작곡과 함께 관객과 즐길 수 있는 레파토리로 공연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기획의도

부평구 백범로 503번길 일대에는 가좌IC~장수IC가 연결된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어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혼잡합니다. 십정5구역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으로 부평구의 서쪽 끝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3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기획자는 2년 계약이 끝날 무렵 이주를 결심합니다. 대부분 전, 월세 다세대주택 주민으로 정주성이 없어 정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 중 카페 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국적, 이색적 인테리어로 작은 카페 공간인 콩은 인테리어 일을 전문으로 하던 대표님의 기술을 살려 조금씩 확장되어 현재 뒤뜰에는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장과 루프탑까지 오픈했습니다. 마음 둘 공간 하나가 이주를 막을 정도로 카페 콩은 주민으로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호시탐탐 이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간활용을 꿈꾸던 기획자는 이제 이곳에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문화도시부평의 부평별곳에 잘 맞는 공간과 기획이 될 것입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2월
- 카페콩
- 활동내용
 - 카페 콩서트 제작회의 및 공연자 미팅
 - 카페 콩서트(Cafe Congcert) 1st Stage
 - 카페 콩서트(Cafe Congcert) 2st Stage

향후계획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간들에서 매출을 높이는 방안으로 특색을 살린 공연, 전시, 기획 등을 꾸준히 논의해 함께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2022년에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2022년에는 매월 혹은 분기마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카페 콩과 기획자 싱어송라이터 강현구가 함께 논의 하고자 합니다.
- 매출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치로 확인해 공간에서 예술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1 문화도시부형 「부평별곡」 활동지원

-

Cafe Cong Concert

카페'콩'
음악회
'콩'서트

2021
11.14
-
11.21

첫번째 이야기

11월 14일
일요일
5시 30분

<기타등등>

일상을 음악에
담아 노래하는
음악생활자
어쿠스틱밴드

<날리굿> GnalyGood

한국전통장법과
민요의 색채를
현대음악에 입혀
새롭게 전하는
퓨전밴드

두번째 이야기

11월 21일
일요일
5시 30분

<남달리>

일상 속 순간과
감정의 반짝임을
찾아서 노래하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파드마> pAdma

다양한 지역의
지구별 주연들과
소통하며
음악을 만드는
지구별음악밴드



카페'콩' 음악회 '콩'서트 cafe Cong Concert

연재...2021.11.14 일 - 11.21 일 오후 5시 30분 (공연 시작 시간 동일)
어디...인천 부평구 백암로 503 1층 카페콩
궁금...010-7714-0815

카후보이 모자가 프레이드마크인 사장님이 수년간 묵묵히 꾸려온 실성동희 동네아지프 카페콩,
잔잔하고 따뜻하게 살고 사할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강현구,
이 둘이 만나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가을 저녁, 우리동네 멋진 공연에 초대합니다.







이번 부평별곳 사업을 통해 부평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십정동의 특색있는 카페 콩에서 11월 양 이틀간 네 팀의 뮤지션과 부평구민, 인천시민이 만났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은 가깝게 만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근처 혹은 나의 도보 이동반경 내, 또한 자주 찾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라면 더욱 더 빛을 발하죠.

카페 콩서트는 콩 카페를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린 정상현 대표의 마음 열기와 부평 십정동에서 살며 가게의 단골인 기획자 강현구와 디자이너 김동균의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부평, 인천시에서 거주하는 네 팀의 뮤지션 기타등등, 날리굿, 남달리, 파드마의 멋진 무대, 뮤지션이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음향과 조명으로 함께한 선사인뮤직의 안수민대표,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뚫고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의 열정이 한데 모여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PM 청산별곡님, 담당자 라정민님 이하 부평구문화재단, 컨설팅해주신 김경택님과 기록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여 소감



해인기획 대표자 강현구



인천 부평구 수변로 3, 지하 1층 (부개동)

미래문고

- 대표자 조병윤
- 이메일 mi102300@naver.com
- 홈페이지 blog.naver.com/mi102300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3, 지하1층
- 연혁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서점 문화활동지원 (6.1~11.30)
 -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6.1~11.30)
 - 2021년 문화오아시스 조성사업 (5.1 ~ 10.31) / 60+ 행book학교 지역서점 문화활동지원 (4.1~ 10.5)

사업명 : 시를 가깝게 (詩 near)

‘시’ 쓰기를 통해 노년기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읽고 이야기하는 기존 시낭송 모임에서,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학습형 창작교실로 도약 하고자 합니다.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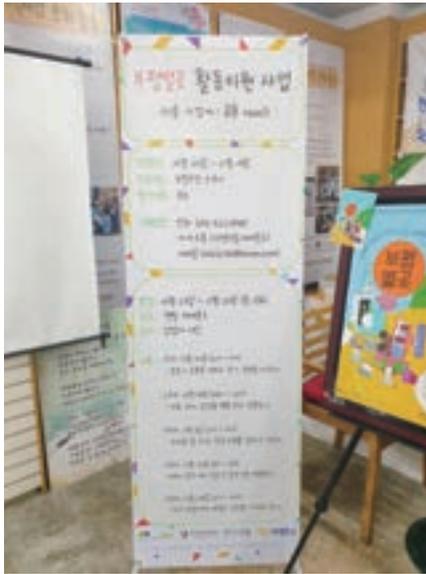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와 낭송을 사랑하며, 심중에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문화 활동의 장을 서점 내에 만들고자 합니다. <소리와 빛깔 문예> 동아리 시화전으로 부평 구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체험학습형 시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

- 2021년 10월 ~ 12월
- 미래문고
- 활동내용
 - 좋은 글을 쓰려면/구양수의 三多(글쓰기 공짜 없다)/ 습작합평.
 - 글쓰기 종자 얻기(말 걸기와 관찰이다)/ 습작 합평.
 - 상상력이 그린 언어의 그림(이미지로 표현장치)/ 시화전 준비.
 - 시적 언어의 전이현상(본래쓰임에 다른 언어 쓴다./ 시화준비
 - 글쓰기의 전경화 법칙 (한 가지만 갖고 쓴다)/ 시화준비

향후계획

지속적인 문화모임을 위해 시화전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작가들과 예비 작가들의 작품 15편 정도로 패널리시화를 제작해서 <미래문고> 사업장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화전시 소식을 SNS에 알려, 주위의 구민들과 미래문고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시화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이번 문화도시부평 <부평별곳>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두 달간 진행하여 매우 기뻐했습니다. <시를 가깝게; 시 near>로 진행된 이번 사업을 하면서, 글쓰기를 좀 더 가깝게 실전에서 다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자들과 매주 1 회씩 진행하면서 시낭송, 시적 언어 그리고 시쓰기 판넬 작업까지 하면서 시낭송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진행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만든 판넬을 미래문고에서 1달간 전시하게 되어 사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된 사업이지만 워크샵부터 컨설팅까지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후 정산과정이 수월해서 서류에 치이지 않고 문화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소감



미래문고 책임지기 이애숙



부평별곳 에필로그



인큐베이팅은

‘문화도시부평’에 사업 1차년도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문화도시부평’이 아직 지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부평별곳 사업에 많은 단체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평별곳 사업이 지향하는 지점과는 조금 다르지만 좋은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3개 팀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당락을 가르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부평의 문화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에 함께할 단체들과 팀웍을 맞추며 문화도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인력소



청년인력소는 부평을 중심으로 인천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동을 해온 곳입니다.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넘어 부평지역의 지역 활동으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컨설턴트와 함께 지역과 청년의 결합, 예술과 지역의 결합 방식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일상을 기록하고 예술활동과 결합하는 의미와 사례등을 탐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획자의 역할 예술가의 역할등을 고민하며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주제를 지역안에서 발굴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천베스트평생교육원



인천베스트평생교육원은 굴포천 인근의 위치한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미술, 공예강좌를 중심으로 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사이클링을 소재로 한 공예작업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예 기법 등과 많은 연구 및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존에 미술과 공예를 중심으로 강사 양성에 집중하였다면 이번 부평별곳에서는 공예를 중심으로 지역과 만나는 작업을 함께 설계 하였습니다. 굴포천 인근 카페에서 나오는 빨대를 재활용하여 입체 모형을 제작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자연물로 공예 물품을 제작하는 등 지역의 핫플레이스인 굴포천을 생태와 재활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안을 완성하였습니다.

부평예술인회



부평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연합회인 부평예술인회는 6개 분과가 활동하는 부평지역의 예술단체입니다. 부평별곳 사업을 계기로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과 함께 협업하고 호흡하는 접점을 넓히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라 지역과 함께하는 방법등을 컨설팅하였습니다.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지역과 함께하는 방안과 더불어 6개 분과와 함께 부평별곳사업에 참여할 아이템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평별곳의 별별이야기



부평별곳의 별별이야기

1. 사업초기와 부평별곳

부평별곳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2건 /24건 8.33%)

많은 참여 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정이 홍보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만큼 기존의 갖고 있던 홍보 채널보다 새로운 홍보 채널이 필요했던 사업이기에 부평구청 및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부평센터 등에서 공적인 홍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 유형에 대한 명확한 안내 (1건 /24건 4.16%)

공간형, 협업형의 지원 유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원 유형에 대한 설명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사업운영과 부평별곳

부평별곳 공간 간의 네트워크나 협업 플랫폼 구축 요청 (5건/24건 20.83%)

부평별곳 사업에 참여한 단체 간의 상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짧고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된다면 참여 팀들 간에 상호 협력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나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업 예산 규정 및 진행 계획의 신속한 안내 (4건/24건 16.66%)

사업 예산 등의 세부 규정 및 계획이 늦게 안내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 부분도 사전 안내 및 협의가 되었다면 좋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시기 및 분야 조정 요청 (2건 /24건 8.33%)

사업 컨설팅이 사업 중간에 진행되어서 사업에 컨설팅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전후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이 각 사업 분야에 맞는 컨설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사업정산과 부평별곳

사업정산의 간소화 요청 (1건 /24건 4.16%)

증빙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중복 서류를 줄이고 사업 정산을 간소화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4. 부평별곳을 마무리하며

전체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5건/24건 20.83%)

부평별곳 사업이 3/4분기에 시작된 만큼 사업이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주민 혹은 예술가들과 협업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홍보와 협의를 할 기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건/24건 12.5%)

부평별곳 지원이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연속 지원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간 개방 등은 프로그램 비롯해 다양한 활동과 실험이 필요하므로, 물론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만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속 지원을 통해 긴 호흡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길 요청하였습니다.

공간의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1건 /24건 4.16%)

부평별곳 사업의 예산 중에 단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획비 예산 항목에 대해서 참여 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공간의 기본적인 운영비 및 공간 관리자의 인건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기획비 관련 의견은 사전방문 및 일상 컨설팅을 통해 거의 모든 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산보고서와 네트워크 파티 등 기록으로 취합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1건으로 표기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부평별곳은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에게 공간을 공유하고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곳입니다. 부평별곳이 부평 곳곳에서 별별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의미를 더해 현판에 담았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부평별곳이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 주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기와 밝은 빛을 공유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남아주길 기대합니다. 가까이에서 부평별곳이 보인다면 별의별 일, 별같이 반짝이는 일에 동참해보세요.







부평
별곳



부평
별곳



부평
별곳





발 행 일 2022.01.15.

발 행 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센터장 황유경
문화도시사업팀장 이미숙
문화도시사업팀 문경선

기 획 총 괄 PM청산별곡

운 영 총 괄 콘텐츠인터체인지

운 영 정경숙, 라정민, 박수희

편 집 기 획 정경숙

편집디자인 웅아트스튜디오

제 작 콘텐츠인터체인지

협 력 디자인 _ 웅아트스튜디오
영상 및 사진 _ 전체화면

